

# “코로나 19에 가장 안전한 한천초등학교로 오세요”

### 학급당 학생수 평균 5명...완벽한 거리두기 맞춤형 1:1 담임 책임제... 과외 수준의 수업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제히 등교를 시작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 속에서 학생 간의 거리두기가 충분히 유지되고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소인수 학교가 떠오르고 있다.

소인수 학교인 화순 한천초등학교(교장 이경숙)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5명으로 수업과 생활지도 및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완벽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며, 전 교사가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30대의 젊은

교사로 이루어져 학생 맞춤형 1:1 담임 책임제로 과외 수준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치활동(다모임)이 활성화되어 전교생의 의견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되고 있을뿐 만 아니라 한천초를 졸업하면 능주중을 입학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한천초등학교는 기초·기본교육과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우기 위해 소프트웨어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교육으로 로봇과학, 코딩, 드론, 스마트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학년도 로봇과학 분야(레고 EV3)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꿈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 주건을 운영해 사진, 국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사진의 경우 전문기기를 초빙해 사진 찍는 방법을 익혀 타기관과 연계한 사진 전시회를 5년째 개최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도 있다.

한천초 관계자는 “한천초등학교(한천초병설유치원 포함)는 화순읍에서 차로 15분 거리로 통학버스

와 택시를 제공 해 재학생 중 67%가 화순읍에서 다니고 있고, 각종 교육과정운영비, 체험학습비나 방과후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학부모회장은 “광주에서 학교를 보내다 한천으로 옮긴 것은 신의 한 수였고, 작은 학교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학교에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함을 전했고”, 화순읍에서 다니고 있는 4학년 강○○ 학생은 “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를 나가지 못한 날이 많아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 학생들과 매일 면대면 수업을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구례 脈 지원시스템 “코로나 19 극복에 앞장섭니다”

2020.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영상회의 개최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윤덕)은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영상 회의는 △ 등교수업으로 인한 학교교육과정 정상운영 여건 조성 △ 교육과정 운영 저해 요인 분석 및 지원 △ 교육지원청 사업 축소?조정 현황 안내 △ 학교

회계 탄력적, 적극적 집행 안내 △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구례 脈 지원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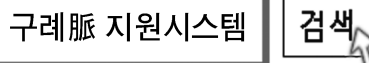
특히 ‘구례 脈 지원시스템’ 설명회는 2020. 구례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학교 지원 사업 소개, 온라인 신청 등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구례 脈 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통해 △ 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사람 책 공감 콘서트 △ 현장체험버스 지원 △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 운영 △ 부모와 함께하는 지리산 트레킹 등 마을 연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윤덕 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지금, 구례 脈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학교 교육과정 및 행·재정 업무 경감 지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구례 = 박진호 기자



지역의 교육자원을 발굴·양성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역 교육자원 홍보 및 학교 교육과정 연계, 감사비, 체험비 등 행·재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진도공공도서관, 다양한 책 읽기 공모사업 선정 운영

정보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체험

진도공공도서관(관장 조정희)은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2020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과 함께

바른 독서습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이쿠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사서와 함께 책 읽기, 도서관 활용 교육, 연극인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월까지 21회 진행한다.

특히 연극인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정수연 연극 선생

님’과 함께 ‘구름빵’ 도서를 읽고 2회에 걸쳐 연극놀이로 재현해 봄으로써 독서에 대한 흥미를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로 3년째 운영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들의 자녀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그림책으로 행복한 아이 기르기’라는 주제로 25회 운영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 “사탕괴물 네가 왜 거기서 나타나!”



고흥평생교육관(관장 이재준)은 11일부터 금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흥관내 20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그림책으로 만나는 문화·예술 순회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탕괴물이 나타났다’ 제목의 이번 공연은 그림책

‘사탕괴물’을 집필한 미우 작가가 직접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1인극으로, 책 속 주인공 금이와 은이 남매가 사탕, 과자 등 몸에 해로운 간식을 많이 먹고 이빨이 몽땅 빠져버린 사탕괴물이 나타나면서 튼튼한 몸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공연 후에는 사탕괴물 인형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 시간도 가져 참여한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낸 큰 효과를 거두었다.

금산초등학교 김현주 선생님은 “학생들이 집중해서 관람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고흥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이런 공연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흥평생교육관 이재준 관장은 “이번 공연처럼 책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고흥 지역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순천대 박종철교수 ‘유럽 약초·식물원’ 발간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한약개발학과 박종철 교수가 프랑스 파리에서 핀란드 헬싱키까지 유럽 13개 나라의 식물원과 궁전의 약초를 소개하는 ‘유럽의 약초와 식물원’을 펴냈다.

순천대 박종철 교수는 유럽 약초에 대한 전문 연구자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체코 키를

대학교 식물원을 포함한 유럽 12곳의 식물원, 프랑스 형지스 국제시장을 비롯한 6곳의 시장, 오스트리아 헬브룬 궁전 등의 12곳 궁전과 정원 그리고 일프스를 찾아 촬영한 생생한 약초 사진과 현지에서 조사한 자료를 책에 게재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한 것으로 유명한 몰약을 담은 꼬미포라 심플리치폴리아, 한약 아취

와 비슷한 갈바눔의 약초 사진은 귀한 자료로 평가되며, 프랑스 파리식물원과 오스트리아 빈 대학식물원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특산 약초인 참당귀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대학 식물원에서 만난 혈관확장약 개발 약초인 암미도 소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